

경산 양지리 유적

경산 양지리 1호 널무덤과 중국의 한나라의 동전



1 개요

영남 중부지방을 동서로 관통하는 금호강 중류의 북쪽 변에 위치한 경산 하양읍 양지리. 무학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에서 기원전 1세기경, 이 일대를 주름잡던 지배자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통나무를 반으로 갈라, 속을 파서 만든 나무판에서는 많은 양의 쇠도끼와 함께 중국 한나라의 청동거울, 동전.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칼과 창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제까지 청동으로 만든 무기만 출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칼과 창, 꺾창 등이 곱게 옷칠한 칼집에 넣어져 있었다. 특히 꺾창집은 중국 한나라 무제(武帝) 때부터 사용하던 오수전(五銖錢) 26개를 표면에 붙여 장식하였다. 이런 것들을 통해 당시 경산 일대를 호령하던 지배자의 삶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2 새로운 발견

양지리 1호 널무덤은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이 설치된 직후, 한반도 남부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무덤이다. 먼저 무덤을 만든 순서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나무널을 놓기 위

해 구덩이를 파는데, 중앙에 별도의 구덩이인 요갱[腰坑]을 하나 더 파서 거기에 꺾창, 투겁창, 자귀 등을 나무상자에 담아 넣어둔다. 그 뒤 여러 개의 쇠도끼를 무덤의 바닥이나 모서리, 벽 등에 세워 놓았다. 여기까지는 널이 놓이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로, 이렇게 요갱 등에 놓여진 유물은 무덤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덤을 만들기 전에 땅의 신에게 바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바닥이 둥근 통나무 널을 놓고 움직이지 않게 양 옆에 흙을 채운 뒤, 널 안에도 쇠도끼를 가득 집어 넣었다. 나무널 안에 망자의 시신을 넣고 오른팔 옆에 청동검과 철검 각각 두 자루씩 모두 네 자루를 놓았으며, 머리 근처에는 호랑이 모양 허리띠 고리와 칠기, 그리고 중국 한나라의 청동거울 등을 두었다. 또한 망자의 가슴과 배, 얼굴 위에 깃털이 장식된 부채를 놓았다. 부채는 죽은 이의 얼굴 등을 덮고 있는데, 요즘의 염과 같은 것으로 이를 복안(復顔)이라고도 한다. 새깃털로 만든 부채를 쓰는 이유는 새가 죽은 이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나무널과 구덩이 사이에는 송어, 복숭아, 참외 등 제수용 음식이 담긴 항아리를 놓았다. 이런 먹거리들은 우리에게 당시의 삶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준다. 먼저 복숭아, 참외와 같은 과일을 제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무덤의 주인공은 여름에 사망한 것을 알 수 있다. 복숭아와 참외가 나는 계절이 여름이고 당시에 음식물의 장기간 보관이 쉽지 않았던 까닭이다. 송어는 바다 생선인데 내륙의 경산에서도 제사에 사용한 점을 통해 당시 식료품의 유통범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생선들은 안동 간고등어와 같이 소금에 절여서 운반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흙을 덮어 무덤을 완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도 제사를 지내고 유물을 깨어서 넣기도 한다.

양지리 1호 널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중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은 다양한 무기의 케이스였다. 칼집은 광주 신창동, 창원 다호리 유적 등지에서 발견된 바 있지만, 창을 끼워 넣은 창집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창집은 나무에 금속으로 장식을 하고 옷칠을 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또한 꺾창집은 영천 용전리와 대구 지산동 등지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었지만 중국의 화폐인 오수전으로 장식한 청동꺾창집은 처음 보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칠기는 비싸다. 칠기는 옷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여러 번 발라 만드는데, 옷칠의 주성분 중 하나인 우루시올이 방부와 살균효과가 있어 썩는 것을 막아주며 광택도 나서 귀한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이다. 중국의 동전인 오수전으로 장식한 청동꺾창집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3 중국의 오수전이 왜?

오수전은 중국 한무제 원수 4년(元狩四年: 기원전 119)에 처음으로 주조한 동전이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 사상에 의해 도안이 만들어졌으며, 양쪽에 오수라는 글자가 새겨진 동전이다. 오수전의 수(銖)는 무게의 단위로 1수는 기장이나 조 알갱이 100개를 뜻하며 무게는 약 3.25g이다.

한무제 때 처음 등장한 오수전은 이후 왕망의 신이 건국되면서 화천(貨泉) 등으로 대체되지만 다시 부활하여 중국 당나라의 개원통보(開元通寶)가 나올 때까지 장장 구백 년간 사용된 동전이다. 우리나라에서

오수전은 창원 다호리 1호 널무덤, 영천 용전리 널무덤 등지에서 출토된 바 있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꺾창집에 장식된 것은 유일하다. 굳이 유사한 사례를 들자면 이웃한 경산 임당 유적에서 출토된 오수전을 들 수 있다. 이 동전에는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출토된 위치로 보아 칼집에 매달아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중국 동전에 구멍이 나있는 경우는 제주 금성리 출토의 화천 등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이것들은 동전에 끈을 묶어 매달아 장식하는 것이지 칼집에 붙여서 장식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동전을 장식했을까? 지금의 노갯돈과 같이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도 편히 살도록 돈을 넣은 것일까? 화폐라는 것은 교환의 척도, 재부의 축적과 같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 이러한 금속 화폐 경제로의 시작은 고려시대 이후의 상황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이전부터 특정한 물건, 예를 들어 쌀이나 옷감 같은 것이 화폐처럼 활발히 사용되었을 것인데,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魏書 東夷傳)의 내용 중에는 철을 시장에서 돈처럼 쓴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교환의 수단으로서 철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쓰려고 했다면 굳이 칼집에 붙일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눈에 보이는 곳에 오수전이라는 중국 한나라의 동전을 장식한 것은 첫 번째로 돈, 두 번째로 중국 제의 귀중품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시선에 의해 장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지배자들의 삶

기원 전후한 시기의 한반도 북부에는 고구려, 옥저, 낙랑군 등이 있었다. 한반도 남부에는 마한, 변한, 진한 즉 삼한이 있었다. 삼한 중 훗날 신라로 성장하는 진한은 12개의 국이 있었다고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경산 양지리 1호 널무덤의 주인공은 그런 소국 중 하나의 지배자였을 것이다. 그는 중국의 청동거울을 세 개 가지고 있었는데, 두 개는 문자가 새겨진 소명경(昭明鏡)과 군망망경(君忘忘鏡)이며 다른 하나는 성운문경(星雲文鏡)이다. 특히 군망망경은 지름이 17.4cm로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된 것 중 가장 큰 거울이다. 당시 이렇게 큰 거울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군현에서 한반도 남부의 지배자를 포섭하기 위해 선물로 증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칼은 모두 4점이 출토되었는데, 두 점은 청동, 두 점은 철로 만든 검이다. 특히 네 점 모두 칼집에 넣어진 채 출토되었는데, 칼집의 장식은 평양 정백동 등지에서 발견된 것들과 유사하여 양 지역 간의 교류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이런 칼과 장식은 중국이 아닌 한군현 설치 이전 고조선의 전통을 보여준다.

많은 양의 쇠도끼가 출토되었는데, 그 크기가 거의 일정하다. 크기는 철의 가치와 관련되어 일정한 크기는 일정한 가치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한반도 남부에서는 철을 교환의 척도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쇠도끼를 무덤에 가득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이 철을 아주 많이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함께 출토된 중국 한나라의 문물은 철을 매개로 중국과 한반도 남부가 서로 교류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무덤 안에서 확인된 구슬에서는 비단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한나라에서 수입된 것으로 생각되는 이 비단은 아마도 시신에 입혀져 있던 옷의 흔적일 것이다. 그리고 호랑이 모양을 한 허리띠도 출토되었는데,

그 만든 방식이나 디자인이 진한의 것으로, 무덤 속의 사람의 옷차림이 이 지역의 전통적인 것임을 짐작
게 한다. 종합해 보면 중국 비단으로 만든 진한 전통의 옷차림을 한 지배자를 상상할 수 있다.

경산 양지리 1호 널무덤은 이천 년을 지나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당시의 지배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의 삶은 진한인으로서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중국의 문물을 받
아들이고 철로 동아시아를 누비던 삶이었다.